

편견의 벽 깨고 성취욕구 실현해 가는 기혼 여성들

시작은 어렵지만 삶의 윤택효과는 개인만이 아닌 사회에까지 파급

“즐기면서 기술 배우고 친구 생겨 참 좋아요”

“나도 한번 내 목소리 가지고 내 생활 속의 일, 주부로서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한번 지어 보고 싶었다.”

지난 11월 17·18일 주부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노래들을 만들어 무대에 올렸던 주부작사가 유소림(34) 씨가 어느 TV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의 말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주부문화>라는 말은 낯설다. 아니 <주부문화>라고 분류된 단어가 존재할 만큼 주부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주부들만의 독특한 문화공간이 없었다는 말이 더욱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대다수 주부들이 가사노동 외에 기껏 하는 일은 이웃과 자녀교육, 남편에 대해 수다의 문화(?)를 키우거나 TV시청을 통한 대리만족이나 대리배설 정도라고나 할까?

그나마 수다의 문화차원에서 벗어난 것이 70년대 말부터 한차례씩 몸을 일으켜 온 각종 공예 배우기.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일본에서 유행했던 지점토, 지공예 등이 국내에 보급되면서 주부 1인1기는 가져야 최소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공예를 배워 집안을 장식하는 일이 유행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된 주부들의 배우기 문화는 신문사 문화센터, 도서관, 각종 문화센터, 문화교실을 급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즐기면서 기술도 배우고 친구들도 사귀고 얼마나 좋아요? 집안에만 있다가 이렇게 목적을 갖고 외출을 해보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네요.”

강남의 문화센터에서 만난 한 주부는 뭔가 하나씩 배우면서 일상적인 가사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다니기 시작한 게 6개월째 접어들고 있다고 한다.

각종 공예와 홈패션, 생활도예 등에서 시작된 문화센터의 강좌는 이제 소설, 시작법 등 전문적인 문학강좌를 비롯해 어학, 미술, 음악, 스포츠와 교양 강좌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거기다 그때 그때 사회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강좌가 첨삭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노래부르기와 건강 및 한방강좌, 역학 강좌 등이 호응도가 높은 편.

어머니 노래부르기회 회장인 구지윤 씨가 지도하는 (갤러리 아) 문화센터의 노래부르기 강좌엔 줄을 서서 등록을 해야 할 만큼 붐빈다.

대학 1학년과 중3인 아들 둘이 있다는 김영자 주부는 “아들이 웬만큼 크고 나니 집안에선 내 잔손길이 필요없어지면서 자꾸 무기력해지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러던 차에 이웃 주부의 권유로 그녀와 함께 나왔죠. 가사를 적어 싱크대에 붙여 놓고 노래하기도 하는데 자신도 즐겁고 집안분위기도 좋아졌어요. 밥먹고 할 일 없어 노래한다는 이전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라며 스트레스 해소엔 노래가 최고라고 말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일과 연결시켜 보고자 하는 주부들 중에는 방송작가나 리포터 교실의 문을 두드리거나 여성경영자교육에 참여하는 주부들도 많다.

특히 3월부터 개설된 여성신문의 소자본경영자교실에는 기대했던 이상으로 많은 주부들이



▲ 주부극단 '뜨락'이 공연한 <절반의 실패>는 주부들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 '생활그림책연구회' 회원들은 생활속에서 아이들이 직접 부딪히는 문제들을 그대로 책에 담아내고 있다.

찾아와 경제행위 즉 일에 대한 주부들의 의욕과 열기를 가늠할 수 있게 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같은 배우기 문화로 더욱 축적된 주부들의 의욕과 실력은 이제 본격적인 창작행위예술로 결실을 이루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명실공히 <주부문화>랄 수 있는 본격적인 문화행위를 하는 주부, 주부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전업주부 15년을 넘으면서 아들이 엄마한테 질문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고 남편은 바빠지고... 나의 가치는 뭔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살림뿐인데 무엇을 해야 하나 방황하다가 그래도 전공했다고 기억을 되살리고 새로이 공부하면서 연극을 찾았죠.”

지난 가을 창단후 3번째 공연인 <절반의 실패>를 극본, 기획, 연출한 손혜자(극단 <뜨락>의 대표) 씨의 말이다.

주부들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를 찾고 싶어” 교육·강좌를 찾았다면, 자신은 꼭 빼놓은 채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어머니로서 살아 온 주부들이 “나는 누구이며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회의하며 자신만의 작업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이 사회에 주부들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주부로서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것이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지요. 특히 시부모님이 아프다거나 애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는 갈등도 일어나요. 난생 처음 해보는 연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공연을 마치고 난 후에 느끼는 자신감과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이번 공연에서 성의 소외받는 여인역을 한 김경희 씨에게 처럼 주부들의 극단 <뜨락>은 평범한 가정주부들이 쪼개낸 시간을 활용하여 연극을 공연함으로써 주부들도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배우가 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고 있다.

15명의 회원이 매주 목요일 연습모임을 가지며 연 2회 정기 공연을 갖고 있는 <뜨락>은 주부들 모임이어서인지 살림하는 주부가 모든 것을 다하듯 기획·연출, 무대장치, 의상 소품마련까지 모두 직접 한다고.

지난 가을 ‘엄마가 쓰고 그린 그림책과 원화전시회’를 가진 <생활그림책연구회>와 주부들이 직접 가사와 곡을 쓰고 불인 노래들을 무대에 올린 ‘여성노래한마당’ 공연 등도 주부들의 시각에서 문화활동을 추구해 온,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아직은 어리지만 애가 두살 세살 먹으면서 관심을 갖고 애들 책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애들 책 사주기가 너무 비싸고 더구나 시중 책의 많은 부분이 외국그림을 그대로 베껴 낸 것이더군요. 처음에는 내가 직접 내 아이에게 책을 만들어 주자고 시작했는데 차츰 하면서 내 아이의 문제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생활그림책을 모든 자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죠.”

그림책 <종이꽃 진짜꽃>을 만든 오옥경 씨의 말이다.

동화책 만들기, 노래짓기, 글쓰기 등의 창작활동으로

자식 교육을 위해 ‘자녀그림책 만들기’ 공부를 하던 엄마들이 모인 <생활그림책 연구회(회장 정연희)> 회원들은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애들이 부딪히는 문제를 그대로 책속에 담아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작업을 하면서 그애들이 무얼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고 애들이 잘못을 했을 때도 직선적으로 화를 내기 보다는 그림으로 보여주거나 동화하듯이 우회적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한다.

거기다 임옥인 씨의 경우처럼 남편의 동화책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 ‘아빠도 동화책을 읽어주는 사람’으로 애들과 아빠의 생각을 바꿔 놓는 기대하지 않은 효과까지 얻게 되었다.

스스로의 창작을 통해 독특한 주부문화의 한 장르를 열어가고 있는 모임이 생활그림책연구회다. 13명의 주부들이 먹고 치우는 틈틈이 자투리 시간을 내어 작업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모임을 통해 평가와 도움을 주고 받는데 그 과정에서 아동도서에 대한 모니터의 필요성을 절감한 이들은 앞으로 이 역할도 담당할 계획이다.

“끝없는 집안일 반복 또 반복 / ... / 여자라서 아내라서 / 여자라서 어머니라서 / 사랑의 이름으로 / 모성애의 이름으로 / 일할 의무만 던져 주고 / 일할 권리는 빼앗아갔네 / 나는 일이 필요해 / ... / 사람 구실하게 하는 일이 필요해 / ...

여성노래한마당(여성신문 101호 보도)에서 선보인 노래의 하나다. 한 개인으로서 보다는 아내·어머니로서의 역할부담이 큰, 그래서 하는 일 모두가 심지어 문화행위조차 그 역할을 잘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는 주부들이지만 그 여성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건강한 삶을 얘기해 주는 노래는 거의 없다. 따라서 대리만족이나 환상 속의 꿈을 키우게 하는 노래로 여성의 정서는 위축되고 왜곡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에서 일상생활과 유리되지 않은, 생활속에 뿌리를 내린 노래를 만들어 보급해 보자는 것이 ‘여성노래 한마당’이었다.

특히 이 공연은 전업주부인 안일순, 유소림, 안혜경 씨 등이 직접 노랫말을 쓰고 곡을 만들으로써 주부문화의 또 하나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작곡·작사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전문적이어서 쉽게 접근이 어려운 듯한 분야에서도 여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생활을 그린 노래가 있다는 건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최근 ‘주부백일장’ ‘여성문학상’ 제정 붐이 일면서 글쓰는 주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주부문화의 한 현상이다.

“글쓰는 일은 일종의 마약과 같아요. 결혼하고 아들을 낳으면 서도 글 쓰고 싶은 꿈을 버리지 못해 만삭의 몸으로 대학원을 다니기도 했죠.

쓰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아무 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창작의 기쁨, 신기함 때문에 펜이 안 빠져요.”

문학아카데미 2기로 문학 수업을 하다 아동문예로 등단한 이윤희 씨는 내년 1월부터는 장편동화 ‘하얀 저 눈언덕 넘어’가 <새벗>에 연재될 만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주부 동화작가다.

이윤희 씨처럼 결혼과 출산으로 미루어진 꿈을 이루기 위해 글을 쓰는 사람들도 많지만 요즘 웬만한 기업에선 주 소비자인 주부를 대상으로 글잔치를 벌이고 있어 생활 속에서 우러난 수필과 소설 등을 쓰는 주부들도 많다. 물론 이들 중에는 한차례 당선으로 끝나는 예도 많지만 그것을 계기로 전문적인 작가로 성장하는 주부도 적지 않다.

이밖에도 음대출신의 결혼한 주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마드리 실내악단(’83년 창단, 단장 박민중)은 일주일에 2번 연습으로 평균 매년 4회 이상의 공연을 갖는 활발한 음악단체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6~7년씩 살림만 하다가 쉼이 아까운 제주로 다시 모인 이 여성악단은 주부문화 영역의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대체로 수입 바라지 않고 사회복지 차원의 길로 연결

이상에서 살펴본 주부문화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중 살림을 하면서 동남한 시간을 쪼개어 하는 작업이라든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적이다. 수익을 바라지 않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마드리 실내악단(진도모포 후원)이나 뜨락(계몽사 후원)의 경우처럼 기업의 지원을 받는 단체도 있다.

또 때때로 나오는 수입으로는 산간벽지에 책보내기(생활그림책연구회)나 신장병 환자를 돕기 위한 정기공연(마드리 실내악단) 등 사회복지 차원의 일로 연결시키는 것도 주부문화의 한 특징이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주부들이 할 일이란 ‘가정을 지키는 것’이란 편견에 갇혀 있다. 이 편견의 벽을 깨고 자신의 성취욕구를 실현해 가는 여성들, 시작은 어려웠지만 그것이 주는 삶의 윤택효과는 그들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에까지 파급될 것이 기대된다. (홍미숙/자유기고가)